이른 추석에 가을장마까지…안타까운 農心

궂은 날씨 일조량 부족, 당도 등 상품가치 하락

일시 출하 가격폭락·시장서도 외면받을까 걱정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폭우를 동반한 ‘가을 장마’가 이어져 과수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궂은 날씨 탓에 사과·배 등 햇과일의 당도는 물론 빛깔마저 끌어올리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날씨 탓에 상품성이 떨어지고 출하 작업마저 차질이 빚어져 대목 직전 일시에 상품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폭락이 일어날까 애태우고 있다.

◇수확 기쁨보다 제값 받을까 걱정＝나주시 세지면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정군수(72)씨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한 해 고생을 보상받는다는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연일 궂은 날씨 탓에 배 수확 작업과 출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마 뒤에도 적지 않은 비가 계속 되는 바람에 농작물에 수분이 과잉 공급돼 당도가 떨어져 기대했던 ‘제 값’을 받기에는 올해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포도의 경우 연일 계속되는 비로인해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출하를 앞두고 수분이 과잉공급되면 포도 알이 툭툭 터지거나 찢어져 다른 과일보다 제 값을 받기 더 힘들기 때문이다. 당도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도 농가에게는 부담이다.

장성 사과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일 비가 내리면서 사전 주문을 받은 사과 수확 작업은 번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 가운데 일부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일부러 상당기간 출하를 미룰 것으로 예상돼 추석 대목을 코 앞에 두고 막판에 상품이 시장에 풀리게 돼 가격 폭락 현상이 빚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과의 경우 출하 직전 햇볕에 상당기간 노출돼야 특유의 붉은 빛이 돌게 되고, 배도 당도를 올리기 위해선 비가 그친 뒤 1~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농가는 “날씨 탓에 출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농가로서는 되도록 당도를 끌어올린 뒤 출하하려는 경향이 강해 추석 대목을 코앞에 두고 물량이 몰려 과일 가격이 급락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품질저하로 시장 외면받을까 걱정＝과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은 이른 추석(9월8일)과 출하 직전 잦은 강우로 당도 등 품질이 떨어진 탓에 추석 대목 시장에서 과일이 주목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이른 수확과 잦은 비로 햇 과일 맛이 떨어진 탓에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을 과일 대신 공산품이나 수산물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나주배 원예농협의 한 관계자는 “궂은 날씨로 햇과일 맛이 떨어진 탓에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과일 시장을 외면할까봐 큰 걱정”이라며 “농가로서는 추석 대목 기간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일시에 팔아서 그간 빌려썼던 자금을 되갚아야 하는데 과연 수요가 따라줘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도음식 최고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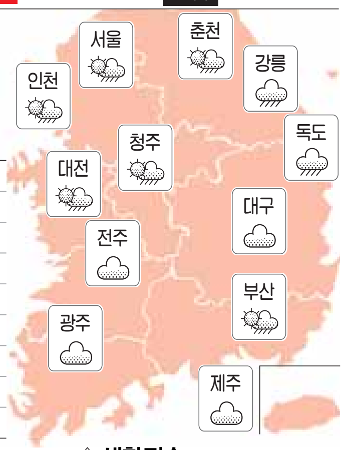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에서 최근 열린 국제여름학교(2014 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본 대학생들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떡잡채를 만들어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오늘의 날씨

해뜸	06:00	달뜸	06:25
해짐	19:08	달짐	19:15

구름 낀 하늘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고 흐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22/28	보 성	흐림	21/30
목 포	흐림	22/28	순 천	흐림	23/30
여 수	흐림	23/28	영 광	흐림	21/28
나 주	흐림	21/28	진 도	흐림	22/29
완 도	흐림	22/29	전 주	흐림	22/30
구 례	흐림	22/30	군 산	흐림	22/28
강 진	흐림	22/29	남 원	흐림	20/29
해 남	흐림	22/30	흑산도	흐림	22/26
장 성	흐림	21/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	북서~북	0.5~0.5
	먼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먼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2:46	08:00
	14:49	20:04
여수	09:27	03:18
	21:47	15:28

◇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40
빨래	60

◇ **주간 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9/1(월)	2(화)
19/28	21/28	21/27	21/28	21/28	22/28	21/27

장성 시간당 80㎜폭우…광주·전남 차량 20대 침수

장성군에 시간당 최고 8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광주·전남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비는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양 백운산 182㎜, 순천 139㎜, 신안 임자도 132.5㎜, 장흥 대덕 126.0㎜, 장성 상무대 126.0㎜, 화순 123.5㎜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번 비로 광주·전남에서는 차량 20대가 침수되고 상가와 주택 등 4개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비가 집중된 순천지역은 시내 도로 40여곳이 침수되고 4군데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모두 복구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

“약물중독 두살배기 치료시기 놓쳐 사망, 병원측 책임”

법원 “전남대병원은 880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5일 음료수병에 담긴 살충제를 마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증상이 악화돼 숨진 A(2)양 유족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A양이 응급실에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해열제만을 처방한 채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음료수 병 속에 있던 살충제를 마셨고 이후 부모와 함께 의원 등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관련 증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기에 받지 못했고 증세가 악화, 이틀 뒤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작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약물 중독을 의심, A양에게 해독제 투여 또는 호흡보조요법 등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실시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A양의 유기인계 살충제 중독 증상을 유심히 살펴 조기에 관련 증상을 발견,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A양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도 A양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 병원측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약물중독과 사망 사이에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 병원 의료진 모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인식 달라졌다

공공기관, 초·중·고교 안전교육 3개월 새 3만1천여명 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불감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광주지역 공공기관 직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 간 지역 내 소방서가 학교와 관공서 등을 상대로 시행한 안전교육은 모두 316건으로 교육 참가인원만 3만1018명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인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 간 안전교육 217건(참가자 수 1만7790명)보다 99건 많은 수치다.

또 안전교육 참가자 수는 1만3228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소방서는 지난 6월 3일 광주효광초교 교직원 67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한 데 이어 지난 5월 28일엔 광주서초교 학생 135명을 상대로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교육을 하는 등 그간 소화기 사용법·응급처치훈련·화재예방·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을 해왔다.

이같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이를 전담할 소방인력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